



〈총, 균, 쇠〉 〈제3의 침팬지〉의 재러드 다이아몬드(1)

그를 10월호에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글 때문이다. 세계적 과학 저술가 가운데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재러드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그에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인 한글을 창조해낸 나라’이다. 1998년 풀리처상에 빛나는 자신의 저작 〈총, 균, 쇠〉는 물론이고 그를 세계적 과학 저술가의 반열에 올린 〈제3의 침팬지〉 한글판 출간에 맞춰 다이아몬드는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나는 오랫동안 인류의 과거를 더듬어 그 생성과 발전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데 여러 인종과 민족이 갖는 언어와 문자의 생성·발전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부터 그 방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한국 민족 여러분만이 쓰고 있는 한국의 알파벳, 즉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감탄해 왔습니다. 한글은 세계의 어느 문자 못지않게 매우 다양한 음을 갖고 있고 매우 과학적으로 짜인 언어입니다. 또한 배우기가 쉽고 익히기 쉬운 점 때문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자의 하나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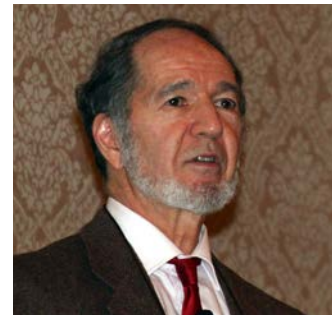


글 안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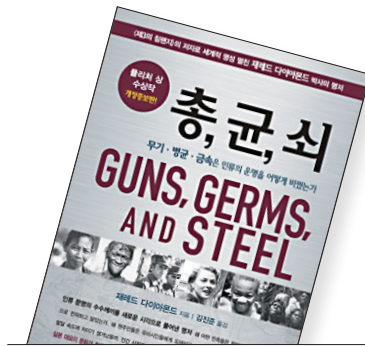
과학칼럼니스트

jjahnpark@hanmail.ne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신문 과학기자, 한겨레 보건복지전문기자를 지냈으며, 현재 〈프레시안〉에 ‘안중주의 건강사회’를 연재하고 있으며 〈내일신문〉에 ‘세상읽기’와 과학·환경 분야 서평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다.



▶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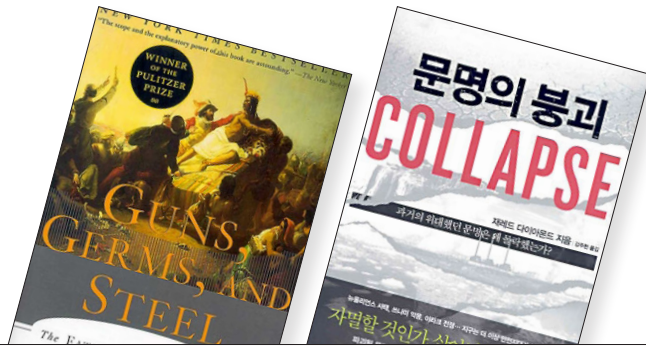
언어를 가장 잘 알고 한국을 좋아하는 과학저술가의 한글 예찬 이유는?

그의 이런 한글 예찬을 듣고 있노라면 한글을 홀대해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영어에는 죽자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다. 그는 소수민족의 언어. 옛 인류들이 사용해오던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는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재능을 지녔다.

그는 한글 창제 과정과 한글의 원리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문물을 전해준 것이라든지,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문화 전달 통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는 <총, 균, 쇠> 한글판 출간 때 한국 독자들에게 한 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 최초의 문명중심지 중 하나인 황하문명과 그 성과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의 단순한 예속 국가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의 좁고 긴 지리적 특성, 황해라는 자연의 장벽, 그리고 대부분이 중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한국의 기후적 장벽으로 인해 별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풍부한 어장과 해산물을 지닌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기문화와 정주부락을 이룩했던 선사시대의 인간사회를 부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학의 기본적인 사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 언어, 민족, 그리고 크고 강대한 이웃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실이지만 지리적 조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주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일본에 아시아 대륙의 작물, 가축, 식량 생산 방법과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주마간산 격이라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그의 삶과 저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싶어 간단하게 소개한다. 다이아몬드는 교사 겸 언어학자, 피아니스트 연주가인 어머니와 유전 관련 소아 질환을 전공한 의사 아버지 사이의 유태인 양가 집안에서 1937년 태어났다. 일곱 살 때부터 새에 ‘필’이 꽃혀 조류 관찰 마니아가 됐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조류진화학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연구를 위해 원시부족 사회가 유지되고 있던 뉴기니 등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된다. 그가 직접 <총, 균, 쇠>에서 밝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부 때 어학, 역사학, 작문 등에 대해 주로 배웠다. 생리학 박사 과정에 들어간 뒤에도 처음에는 언어학자가 되려고 잠시 자연과학을 포기할 뻔했다. 1961년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분자생리학 연구와 진화생물학·생태지리학에 대한 연구를 병행했다. 그리고 실험과학이 아니라 역사과학인 진화생물학 탐구 덕분에 나는 역사의 전개에 작용하는 인과 관계의 사슬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33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로서 현장 탐사를 하면서 나는 각양각색의 인간 사회와 가까이 접촉할 수 있었다. 내 전공 분야는 조류진화론이며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뉴기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이처럼 여러 지역의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동안 나는 최근까지 석기에 의존하던 수렵 채집인, 부족생활을 하는 농경민, 어민 등 기술면에서 원시적인 인간 사회를 잘 알게 됐다.”

해박한 과학과 인류학적 지식 바탕으로 문명연구가로 우뚝 서다

그가 해박한 과학 지식과 인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는 세계적 저술가이자 문화인류학자, 문명연구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전문 학술지인 <네이처>와 <내추럴 히스토리>, <디스커버> 등 수많은 과학 잡지 고정란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이며 이들 과학지의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과학 저술가로도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다. 2005년 영국의 <프로스펙트>와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공동선정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지식인’ 중 9번째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풀리처상 외에도 전미과학상, 타일러환경공로상, 록펠러대학이 시인이자 과학자에게 주는 루이스토머스상 등 20여 개의 각종 상을 받은,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인 중 한 명이다.

이제부터 그의 책들, 먼저 서울대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해마다 가장 많이 빌려 읽는다는, 국내에 번역 출간된 지 10년이 되도록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총, 균, 쇠>에 대해 본격적인 탐구를 해보자. 오늘날 세계의 불평등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생겨났느냐?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파푸아뉴기니(옛 뉴



기니)를 1964년부터 방문해 원주민 출신들을 만나면서 품은 의문이다. 1972년부터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탐구의 바다에 빠졌다. 24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97년 <총, 균, 쇠>(원제는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를 통해 그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유전적 차이성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즉 지리 환경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이아몬드는 모든 인류가 아직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1만3천 년 전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때부터 각 대륙에 살고 있던 인류 사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지금의 이라크), 중국,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남부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부터 야생 동식물의 가축화·작물화가 시작됐다. 이는 그 지역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앞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왜 밀과 옥수수, 소와 돼지, 그리고 현대의 주요 작물이 된 농작물과 가축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작물화·가축화가 이루어졌을까? 그는 그것이 관습 차이도, 유전적 인종차이도 아닌 환경 때문임을 밝힌다.

엷히고 설킨 역사의 수레바퀴 굴러온 원동력-총, 균, 쇠(그리고 언어)로 풀어내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만3천 년 동안 지구촌에는 세 부류의 사회가 오랜 세월 공존했다. 한쪽에서는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산업사회가 발달했다. 다른 곳에서는 문맹 상태의 농경사회가 유지됐다. 또 다른 곳은 석기를 사용하는 수렵 채집인 사회에 계속 머물렀다.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사회들은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기(利器)를 갖지 못한 다른 사회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멸망시켰다. 다시 말해 문자와 철기를 지닌 유라시아국가들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 원주민들을 정복하거나 쫓아냈다. 그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이아몬드는 총기와 병균과 금속이 이러한 역사, 즉 현대 사회 불평등의 역사에 끼친 엄청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제목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언어의 영향도 들어 있다. 수렵 채집 단계를 넘어서 농경을 정착시킨 사회들은 문자와 기술, 정부, 제도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들도 개발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자신들이 입으면서 병원균이 지닌 힘도 알게 됐다. 유럽인들은 지난 5백여 년간 이런 총, 균, 쇠, 그리고 언어의 우위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일부 대륙 등에 대해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대륙 간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우리가 <총, 균, 쇠>에 열광하는 것은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란 키워드로 문명의 발전, 즉 역사 발전을 풀어냈듯이 복잡하게 엷히고 설킨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온 것을 다이아몬드가 총, 균, 쇠(그리고 언어)란, 우리에게 쉬이 각인되는 단순 열쇠말로 풀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호에서는 <총, 균, 쇠>에 이은 그의 문명 탐구 3부작이라고들 하는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와 그의 처녀작이자 그를 과학 저술가로 주목받게 한 <제3의 침팬지>, 그리고 <섹스의 진화> 등 주옥같은 그의 다른 저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음호에 계속)